

野, 기초 후보들 공천경쟁 돌입

광주·전남 예비후보 경선 방식에 촉각 곤두

민주·安측 ‘세대결’·‘지분나누기’ 진통클 듯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기초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을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은 본격적인 ‘공천 경쟁’에 돌입했다.

지난달 2일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명분으로, 전직 신당 창당을 선언한 지 39일 만이다.

그동안 정당공천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40일 가량 표밭을 누비며 얼굴과 이름 알리기 등 인지도 높이기 위해 주력해왔던 예비후보들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 공천파기 경쟁으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불과 55일 앞둔 시점에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이 전격 철회됨에 따라 예비후보들은 짧은 시간 내에 경선을 준비해야하는 부담감 속에 경선방식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옛 민주계와 안철수계가 공천 주도권을 놓고 세 대결 및 ‘지분 나누기’ 진통 가능성도 예상된다.

◇경선률에 따라 선거판세 급변할 듯 = 그동안 당내 경선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후보들은 공천제 유지, 반대로 경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은 공천제 폐지

를 각각 선호하는 분위기가 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비후보들은 이날 무공천 철회에 대한 환영 성명 및 보도자료를 내며 내심 속내를 숨기고 경선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기초단체장에 맞서 후보 단일화 작업을 벌였던 일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도 그동안의 과정을 모두 털어내고 이날부터 ‘공천 경쟁’ 모드로 전환했다.

현재로서는 무공천과 마찬가지로 경선에서도 현역 기초단체장이 대체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개혁 공천’을 발미로 일부 기초단체장에게 ‘메스’를 가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무공천과 달리, 공천 과정에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컷오프’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흙집’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예비후보들의 경우 탈당 뒤 무소속 출마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경선 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판세가 지역별로 크게 출렁거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安측 ‘지분나누기’ 진통 가능성

도 =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 선출을 놓고 옛 민주당계와 안철수계 측 ‘세 대결’과 함께 ‘지분 나누기’ 가능성도 점쳐진다.

신당창당 정신에 따라 ‘5대5 원칙’이 당내에서 강조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합당 방식에도 신당을 창당을 했지만, 아직도 당내에서 양 진영이 화합적 결합이 안되면서 민주계와 새정치계가 따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점도 경선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계와 안철수계가 공천 톨 등을 놓고 팽팽한 이견을 보일 경우 그나마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 많은 후유증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중앙당이 최근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중앙당 최고위원 성격인 집행위원회를 ‘5대5 원칙’에 따라 12명에서 24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지침을 내림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구성하게 되는 공천심사위원회와 재심(再審)위원회도 양측이 동수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공천 과정에서 일부 나눠먹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남도당의 한 관계자는 “5대5 원칙이 이어지다 보면 기초선거 공천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나눠먹기가 이뤄질 우려가 크다”며 “새정치가 구대정치로 비쳐지지 않도록 공정한 경선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6·4 지방선거 현장

광역단체장

강운태 “‘예향’ 광주 문화콘텐츠 중심지 구축”

강운태 광주시장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향 광주가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디어클러스터 구축, 야의 영화촬영소 조성 등 7개 전략을 담은 ‘빛고를 행복 문화 경제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KTX개통,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함께 광주가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지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운태

이용섭 “광주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이용섭 의원이 광주 공동주택을 ‘따뜻한 생활 공동체’의 롤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10일 “광주시 산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공동주택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과 입주자 상담 지원, 공동주택 관리 실태 조사 및 입주자들의 민원해결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이명흠 장흥군수, 3선 도전...예비후보 등록

이명흠 장흥군수가 3선 도전을 위해 11일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이 군수는 “재선의 재임기간 중 산업단지 유치, 물 축제, 장흥과 제주를 오가는 배길 등 획기적인 경제 발전 사업을 펼쳤다”고 밝혔다. 또 “전남지역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로하스타운’(은퇴자촌) 조성과 ‘통합의료센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정부 지원 아래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명흠

조호권 “주민 참여형 복지건강공동체 조성”

광주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시의회 조호권 의장은 10일 “실질적 주민 참여와 삶의 민주주의를 통해 주민이 건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복지건강공동체’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주민 참여형 복지건강공동체는 건강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수렴과 정책 제안을 받아들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건강공동체를 추진하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호권

나도팔, 나주시장 출마 “국제 명품도시 건설”

나도팔 나주시장 예비후보가 10일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나 예비후보는 “나주시를 희망과 비전이 넘실대는 국제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나주시의 인구증대와 최첨단 친환경 농업도시 및 문화 예술도시로 이끌겠다”며 “이 공약을 실현하여 나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웰빙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나도팔

강은미, ‘국군광주병원 공원화’ 토론회 개최

재선에 도전하는 강은미 광주시의원(서구 제4선거구)은 10일 옛 광주 안기부 터에 자리한 광주최소문화의 집에서 ‘옛 기무부대와 국군 광주병원의 공원화,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방치됐던 국방부 시설이 광주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뜻 깊은 일이다”고 말했다.



강은미

시·도당, 공천관리위 등 주내 구성

“확실한 개혁공천...여론악화 차단”

새정치, 기초선거 공천 일정

전남도당 위원장에

이윤석·박소정 임명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지방선거를 불과 55일 앞두고 기초선거에서도 공천을 하기로 함에 따라 기초후보 공천작업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 됐다. 새누리당과 비교해 한 달 가량 일정이 뒤졌을 뿐 아니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인 5월15~16일 이전까지 후보를 내야할 상황이기에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무공천을 고수한 탓에 아직 공천률도 없다. 새정치연합은 시급히 톨을 정하는 동시에 시도당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공천관리위원회 등 공천 관련 의결기구를 구성하고 바로 공천후보자 신청을 받는 등 공천작업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6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시도당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한 뒤 밤 9시 시도당위원장회의를 열어 공천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공동광주시당위원장으로 임내현 의원과 이근우 변호사, 공동전남도당위원장으로 이윤석 의원과 박소정 전 순천YMCA이사가 임명됐다.

최근 중앙당이 시도당에 내린 지침에 따르면 시도당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위원회에서 공천관리위원회·재심위원회·비례대표후보추천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이같은 기구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새정치연합 측은 기초선거 공천 철회에 따른 여론의 악화를 막기 위해 어느 때보다 확실한 개혁공천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국민이 염려하는 기초공천에 관한 폐해들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진정한 개혁공천 실현을 위해 여러 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논란

국회 정무위 40분만에 파행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회의의 시작 40분 만에 파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을 거론하며 보훈처에 기념곡 지정을 요구했으나 박승춘 보훈처장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기념곡 지정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기념곡 지정 제도 자체가 없다”며 현실적 한계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5·18 행사까지 한 달 남았는데 1년이 다 되도록 보훈처는 여전히 ‘방안을 강구해 보고토록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회를 우롱하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낸 뒤 상임위를 진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NAVER 검색엔진에 **단비플라워**를 추천했어요

단비플라워

축하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모텔

- 나주시 송월동 신축 무인텔 4층 대지 1,152㎡ 건물 1,882㎡현재 영업중 매 31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모텔, 식당, 주유소, 대지 7,547㎡ 환경 교통양호 매매 15억

전/대지/과수원

- 나주시 금천면 배과수원(일부 대지포함) 21,000㎡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계획관리 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전 14,215㎡ 2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 예정 계획관리 지역 매매 7억
- 나주시 다시면 전 152,000㎡ 임야 86,000㎡ 대지, 주택포함 매매32억
-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배 과수원 7,252㎡ 냉동창고 포함, 생산관리지역, 2차선 도로인근 매매 2억5천만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2차선 도로변 배과수원(일부 대지 포함) 7,550㎡ 매매 5억6천만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배 과수원 2,975㎡(대지포함)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 지역, 매 1억 4천만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주택 및 전 2,310㎡ 매매 1억7천만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63,310㎡ 4차선 국도변,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061)333-1150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이 상가 빌딩은 고객의 마음을 담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다성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한빛타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나주 슬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드림피아개발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년6억 收益 모델

최고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장부오른, 확인 후 계약가능

대지 6,600㎡, 건물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매가 33억(용 15억) 현금 18억 (가격절충 불가, 부동산 사절, 실수요자만)

문의전화 010.5188.5515